

아버지와 딸: 후기 중세 영국 로맨스를 중심으로

최 예 정

호서대학교

1. 딸은 누구인가?

‘아버지’는 중세 영문학뿐 아니라 현대 문학비평 전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용어 중 하나였다. 정신분석학과 페미니즘 연구에 힘입어 주체의 형성, 가족 제도 및 사회의 존속과 구조 등에 있어서 아버지를 둘러싼 힘의 구조와 의미망 그리고 그 층위는 정밀하게 분석되어 왔다. 특히 중세 영문학 연구에서 아버지는 봉건 사회 특유의 가부장제와 중세 교회의 지지를 받은 반여성론(antifeminism) 등과 맞물리면서 다른 시대보다 더욱 중심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연구되어 왔다. 중세 시대의 아버지는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의 수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행위를 규제할 절대적 권리를 가진 존재였고 의심할 바 없는 권위를 갖고 있었다.¹

¹ 이때 말하는 중세 시대의 가족은 현대의 핵가족과는 다른 개념이다. 부모, 자식뿐 아니라 가장을 중심으로 함께 생활하는 피후견인, 친척들을 모두 포함할 뿐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포함하므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혈연관계 구성원 사이에 남다른 관심이 존재하며 또한 상속, 재산 분배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가족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Wolfthal 1; Mertes 17-74.

가족에서 절대적 권력자인 아버지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축적되어 온 것과는 달리,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불균등하게 발전되어 왔다. 가족 구성원들 중 어머니 혹은 모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페미니즘 연구에 힘입어 상당히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² 또한 부부관계에 대한 논의도 중세의 반여성주의적 전통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문헌학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및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학이나 역사에 대한 논의 양쪽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들,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특히 중세 로맨스에서 기사의 정체성은 결국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로맨스에서뿐 아니라 대다수의 로맨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작품의 주제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작품 안에서 지울 수 없는 후경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³ 이에 비해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자식인 딸의 경우는 이와 크게 달라서, 딸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놀랄 만큼 적다.

일단 문학 작품을 살펴보더라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주제로 삼는 작품은 많지 않다. 가족 구성원 중 딸이 있는지 여부는 어쩌다 스쳐지나가듯 언급될 뿐 로맨스 화자가 반드시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정보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딸이 어느 정도 관심을 받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두 종류이다. 외동딸로서 상속녀의 위치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강요하는 결혼에 반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딸 자체에 대한 묘사나 그녀의 행동 자체가 서사의 간간을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고 딸은 다만 서사의 출발, 혹은 동기 부여 지점으로서의 의미만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중세 가족에서 딸은 어디에 있는가? 딸은 누구인가?

주지하다시피 가족은 초역사적 구성체일 수 없고 역사 발전에 따라 다양한

² 특히 중세 로맨스에서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와 중첩, 변주되며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풍부한 종교적 문헌과 시각적 이미지리 등과 결합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논의가 더욱 쉽게 발전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Fellows와 Salter 참고. 또한 여왕, 혹은 왕비에 대한 역사적 연구 역시 발전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증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여왕 혹은 왕비에 대한 역사연구에 대해서는 Parsons, "Introduction", "Mothers," 그리고 Stafford 143-74를 참고할 것.

³ "Fair Unknown"은 중세 로맨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티프 중 하나였고 중세 영국 로맨스에서도 *King Horn*, *Bevis of Hampton*, *Sir Tryamour* 등 다수가 이 모티프를 차용한다. Malory의 *Morte D'Arthur*에서도 이 모티프는 작품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생각과 개념이 교차하면서 구성된다. 후기 중세 영국에서의 가족 역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부부간의 사랑과 혼외의 사랑, 양육과 부모 노릇, 가정, 친밀성, 권위, 젠더 관계, 노년 등 다양한 것들이 부속된”(Riddy, “Fathers and Daughters” 20) 의미의 복합물이었다.⁴ 또한 그러한 의미들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 다른 의미층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재조정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딸’이라는 존재의 의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예를 들더라도 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가 지난 30여 년간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음을 감안한다면 후기 중세 영국이 그들 나름의 독특한 정서와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로맨스들, 특히 본고에서 주된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후기 중세 영국 로맨스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후기 중세 영국의 역사적 현실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교차, 그것을 배태하고 산출한 의식, 기대, 수용과 반발 등의 역동적인 관계를 되짚어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후기 중세 뿐 아니라 중세를 통틀어서, 그리고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문학작품이나 역사 기술에서 딸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 딸은 어디에 존재하는가?⁵ 딸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은 아마도 중세 시대 특유의 여성의 개념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세 시대의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네 번째 계급”(the fourth estate)으로 개념화되었다. 교회에서는 여성을 마리아/이브의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개념은 다시 성직자와 속인이라는 교회의 또 다른 이분법적 신분 개념에 따라 수녀와 부인, 혹은 처녀(virgin)와 부인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석 과정에서는 의미의 미끄러짐(slippage)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속인 여성 모두를 부인이라고 통칭할

⁴ 지역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관습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것. Rousseau and Rosenthal, *Women, Marriage*; McSheffrey, “Consent”; Voaden and Wolfthal, *Framing*; Hanawalt, *Wealth*.

⁵ Brewer는 전통적인 가족 서사를 논하면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거듭 다루기는 하지만, 그는 신데렐라의 경험과 고통을 딸이라는 위치, 혹은 여성이라는 젠더의 문제에서 접근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식, 즉 젠더의 특수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논한다. 가령 신데렐라와 그녀의 의붓 자매들과의 갈등은 형제간의 경쟁심(sibling rivalry)으로, 의붓어머니와의 갈등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부모, 자식간의 갈등의 한 형태로 환원시킨다. 11-12; 20-22.

수도 없고 또한 처녀라고 해서 모두 수녀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인은 결혼 전에는 처녀였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죽으면 계속 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유동적 위치에 있다. 부인은 과부, 재혼의 과정을 거쳐 다시 부인이 될 수도 있고, 과부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수녀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여성은 한 생애 내에서 성직자와 속인, 처녀/부인/과부의 구분을 넘어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동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에서도 다시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즉 여성은 결혼 후에는 가족에서의 그녀의 위치에 따라 부인, 혹은 과부로 규정되는데 비해서 결혼 전의 여성은 가족 내에서의 그녀의 위치인 딸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되는 경우가 드물다. 가족 내에서는 딸이지만 가족 밖에서 그녀는 딸이라는 점보다는 처녀라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여성은 그녀가 지닌 섹슈얼리티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딸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로, 혹은 문헌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혼인 서약이다. 신부는 누구의 딸인지 기록되고 그 기록은 그녀의 지참금의 액수와 지불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상속할 아들의 대가 끊겨 재산이 딸에게 상속되거나 무남독녀 외동딸이어서 유일한 상속자일 때에도 딸이라는 것은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닌다.⁶ 이것은 딸이란, 혼인과 상속에서 그 신체와 재산의 귀속권을 가리기 위한 위치적, 관계적 성격으로 이해되고 규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혼인 이전의 딸의 법적, 경제적 행위의 집행자로서 존재하고 혼인 이후의 딸은 상속할 아들 혹은 남자 자손이 없는 조건에서만 다시 그 아버지와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진다.⁷

“딸”이 어떻게 개념화되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약 200여행으로 이루어진 “훌륭한 부인이 딸에게 가르친 것”(What the Goodwife Taught Her Daughter)이라 알려진 시를 통해서이다.⁸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말까지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시에서 딸이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엄밀히 말하면

⁶ 자세한 사례들은 McFarlane, 142-67; Hanawalt, 50-68을 참고할 것.

⁷ McFarlane은 14세기 이후 영국 귀족의 변천에 관한 연구에서 상속한정남성제도(tail male)의 집행과 그것의 효과 등에 관해 자세히 논한다. 142-67 참조.

⁸ 이 시에 관한 논의는 Riddy, “Mother Knows Best” 참조. Riddy는 이 글이 아마 자신의 친부모 곁을 떠나 도시에 와서 결혼 전에 잠시 하인 신분으로 도시에 와서 거주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직자가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결혼 전의 여성을 뜻한다. 그리고 이 딸은 가정에서 부인과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러한 기대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혼화는 진행된다. 즉 딸이란 존재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의미는 갖지 않고 다만 부인 그리고 어머니가 되기 위한 전 단계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딸은 결혼이라는 조건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결핍된 존재이며, 원만한 결혼 관계로 진입하지 못한다면 그녀가 가진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사용되고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지 모르는 불안하고 짐스런 존재임을 이 혼화시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딸은 순결하게 살다가 정숙한 부인이 되면 된다. 어머니가 되면 딸은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대를 잇는 존재로서 특권적 지위를 지니게 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딸은 단지 “부재”로서 의미를 갖는다(Ashton 417). 딸은 그 자체로 정체성을 갖는다고보다는 부인, 혹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전의 임시적 존재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딸은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존재이다. 법적으로나 상속 재산, 섹슈얼리티 그 어느 편으로 본다 하더라도 딸은 현재 아버지 집 안에 있지만 끝까지 아버지 소속이 아니며 또 되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결혼 후 그 딸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을 경우 딸은 다시 아버지의 가족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보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아버지가 원하지는 않는 일이지만 아들이나 남자 자손의 대가 끊기게 되면 딸은 다시 아버지의 상속녀가 되어 아버지와의 혈연관계가 다시금 강조되며 자식으로 취급된다. 게다가 샤를마뉴나 에드워드 1세의 딸들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딸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부자간의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노년에 정서적으로 아버지가 의지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⁹ 딸은 자식이면서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관할권 안에 있기도 하면서 밖에 있기도 한 경계에 서 있다.¹⁰ 딸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집 밖의 소속이 될

⁹ 정치적, 정서적 조력자로서의 Charlemagne의 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Nelson을 참고. Edward 1세의 딸들이 왕자 Edward of Caernavron와 아버지 Edward 1세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Parsons, “Mothers” 68-69면을 참고. Edward 1세가 정서적으로 믿고 의지한 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Parsons, “Mothers” 70면을 참조.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딸이라는 점을 가족의 초상화를 통해 보여주려 했던 Thomas More에 대해서는 Riddy, “Fathers and Daughters”를 참조.

¹⁰ Boose는 딸은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방인”(alien)이고 남편의 집에 도달하면 남편의 가족 중에서는 “외국인”(foreigner)이 된다고 말한다. Boose, 20-25, 40-46.

사람이면서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집 안에 있으며 그 혈연적 관계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존재이다. 임시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집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경계인’이라는 딸의 위치는 이 애매모호한 성격 때문에 규정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고 그리하여 딸을 그리는 문학작품은 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거나 매끈하게 만들기 위한 서사적 장치를 만들어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중세 로맨스에서, 특히 후기 중세 영국의 로맨스에서 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은 매우 적으나 딸의 남편감을 구한다거나, 딸을 연모하는 남성이 출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서사의 출발점 혹은 목표로서는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주인공이건 서사의 출발점이건 딸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결정들 가운데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딸과 어머니의 정서적 유대 혹은 연대(solidarity) 등이 제시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와 같이 유사한 서사적 장치 안에 딸이 배치된다는 것은 역사와 담론 생산의 상호적이고 다층적인 역동적 과정을 다시금 보여준다. 반복적인 모티프, 딸의 전경화(foregrounding) 혹은 후경화(backgrounding), 맥락의 지속적 배치 등은 딸을 둘러싼 후기 중세의 역사적 현실을 재현하고 왜곡하며 동시에 누설하고 비판하기 때문이다. 후기 중세 영국 로맨스에서 아버지와 딸을 어떤 “프레임 안에 넣고”(framing)있는지는 결국 그러한 프레임의 생산의 메카니즘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¹¹ 즉 유사한 서사적 장치의 반복을 보면서 우리는 중세 시대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현실원칙과 삶에 대한 신념을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금 우리가 중세 시대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한 중세 작가와 독자들의 환상 혹은 욕망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2. 딸을 사랑한 아버지: 『에마레』(Emaré)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작품의 전면적 주제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로맨스는 아마도 초서(Geoffrey Chaucer)의 『법률가의 이야기』(The Man of Law's Tale), 가

¹¹ “framing” 개념은 Wolfthal에서 빌려왔음(6-7). Wolfthal은 이 개념을 다시 Jonathan Culler, *Framing the Sign: Criticism and its Institutions* (Oxford: Basil Blackwell, 1988)에서 차용했다고 밝히고 있음.

우어(John Gower)의 『사랑의 고백』(*Confessio Amantis*)에 나오는 『컨스탄스 이야기』(*Tale of Constance*), 그리고 『에마레』(*Emaré*)일 것이다. 여러 평가자들이 지적 하듯이 소위 근친상간 로맨스라고 불리는 이 작품들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발견된다. 아버지의 근친상간 충동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혹은 성적인 성격의 다른 죄목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외로운 여주인공, 방향타 없는 배에 태워져 바다에 버려지기, 그리고 어떤 낯선 땅에서 발견되어 보호받다가 결혼하기, 시어머니의 비이성적인 핍박 후 다시 버려지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아들을 매개로 남편과 아버지와 재결합에 성공, 이러한 이야기의 주된 모티프들은 중세 여러 로맨스에서 반복되고 버려지기-구조되기의 패턴의 반복 역시 이러한 이야기들의 특징이다.¹²

많은 중세 로맨스에서 이러한 모티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중세 시대의 여성이 속한 사회와 가족의 구조,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이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복되는 모티프들이야말로 여성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을 프레임화한 정형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14세기 영국에서 이러한 모티프들이 다시금 재활용, 재구조화되면서 지어지고 유통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³ 영국의 『에마레』는 기본적으로 마리 드 프랑스(*Marie de France*)의 브레튼 시가(*Breton lay*)가 갖는 노래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사용되는 어휘 수의 빈약성이나 다소 어색한 리듬, 약강음보 패턴(*iambic pattern*)이 자주 어긋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귀족층의 작품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마도 14세기 말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의 모직 상인(*wool merchant*) 집안들에서 낭송되던 것으로 보인다(*Laskaya and Salisbury 145*). 이 시의 인기와 광범위한 유포는 결국 중세 시대

¹² Osborn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원형을 “물길을 헤쳐오는 성모 마리아”라는 모티프를 지닌 지중해 연안의 민담 전통에서 찾는다. Osborn 1-6. 이러한 모티프를 지닌 이야기들은 중세 로맨스에서 자주 발견되며 이것들은 컨스탄스 사이클(*Constance cycle*), 죄를 뒤집어쓴 왕비 이야기(*tales of accused queens*), 무고에 시달리는 부인(*Calumniated wife*), 버려진 왕비(*Castaway queen*)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Laskaya and Salisbury*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영국을 넘어서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태리 아랍, 페르시아, 그리고 라틴 판으로도 존재하며 그 장르 또한 연대기, 로맨스, 제스트 사이클(*gest cycle*), 그리고 드라마 등을 망라한다. *Laskaya and Salisbury 145-46*. *Emaré*의 반복적 서사구조에 대해서는 Putter, “The Narrative Logic” 참조.

¹³ 『에마레』는 15세기 초의 필사본 *Cotton Caligula Aii*에서 발견되나 사용된 언어는 14세기 말 북동 미드랜드나 이스트 앵글리아의 방언으로 한탄된다. *Laskaya and Salisbury 145*.

의 딸들을 둘러싼 가족제도의 힘의 구조를 드러내는 동시에 당대 영국인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킨스탄스-에마레 이야기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머니가 없거나, 있어도 부재와 다름없이 존재감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딸의 결혼 결정에서 어머니의 발언권은 없고 오직 아버지만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딸의 결혼에서 아버지가 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결혼과 관련된 외교적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본인과 딸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아버지-왕은 교황의 허가를 받기위해 사절을 보내고 교황의 관면장을 받는 절차를 밟는데, 이때 중세 교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부녀간의 근친상간 시도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법률도, 관례도, 교회의 칙령도 모두 장애가 되지 않고 아버지-왕의 신하나 친척 모두 결정을 암묵적으로 찬동하는 듯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한편으로는 ‘근친상간’이 정치적·외교적 목적을 위해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되던 개념이었음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결혼 결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갖는 권위와 권리의 절대성을 암시한다.¹⁴ 딸은 공적 사회의 일원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사적 왕국의 일원이라는 점을 작품이 증명하고 승인하는 셈이다. 드러내놓고 비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아버지와 딸의 결혼과 그 파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에마레를 바다에 버린 후 아버지-왕이 후회하며 슬퍼할 때 이를 보고 슬퍼하고 우는 신하들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이를 본 대 귀족들은
모두 울고 슬퍼했다.
노인이건 젊은이건
웃을 예쁘게 입었던 그녀를 위하여
울기를 그치는 사람은 없었다.

The grete lordes that hyt syghen

¹⁴ Archibald는 인기 없는 통치자를 근친상간으로 비난하는 것은 중세시대의 전형적인 논쟁적 전략 중 하나였다고 말한다. 왕이 국가의 아버지이므로 왕의 가족은 국가의 소유주(microcosm)로 보이기 때문이다(145). 그러나 『에마레』에서도 이 부녀 근친상간 에피소드가 왕의 독재적 통치에 대한 비난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작품 속의 황제는 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다.

Wepte and made yll chere.
 There was nothur oolde ny yyng
 That kowthe stynte of wepynge,
 For that comely unthur kelle. (298-302)¹⁵

에마레와 결혼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또 그녀를 바다에 버릴 때까지 전혀 언급이 없던 이 왕국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제야 비로소 언급된다. 그런데 그녀가 바다에 버려진 후 사람들이 우는 이유 역시 애매하다. 왕이 슬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298), 아니면 불쌍한 처지가 된 에마레 때문인지(302) 분명하지 않다. 딸의 소속은 아버지에 의해 결정되고 비록 그 결정이 옳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점, 딸은 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일반적 사회의 관심보다는 사적 통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 등 사회 안에서 딸이 얼마나 주변화된 존재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한편 컨스탄스-에마레 이야기의 또 다른 공통 요소인 핍박하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들에 대한 시어머니의 집착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근친상간적 집착과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Dinshaw 103). 그러나 아들의 결혼에 대해 주도권을 쥐려는 시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중세의 지배적인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현실 속에 실재하는 어머니의 힘을 반영하기 위한 로맨스의 서사적 장치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즉 현실 속의 어머니와 관념의 어머니의 이중성을 어머니를 쪼갬(splitting)으로서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어머니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존재하나 부재하는-‘좋은’ 어머니와, 지속적인 개입과 참여로 가부장제의 기반을 위협하는 ‘나쁜’ 어머니로 쪼개진다. 핍박하는 강력하고 나쁜 시어머니를 구성한 후 다시 그녀를 저주하고 몰락시키는 서사적 장치는, 어머니의 실제적 힘을 기재(register)하며 동시에 봉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사실 플랜타지네트 왕조 내내 아들과 딸의 결혼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¹⁵ 본문에서 인용되는 『에마레』(Emaré)는 Laskaya and Salisbury의 판본을 사용.

¹⁶ Brewer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등장인물의 쪼개기 현상을 논한다. 그에 의하면 신데렐라의 어머니는 죽은 것으로 제시되고, 그녀 대신에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의 양쪽 성품을 대변하는 인물로 요정 어머니(fairy godmother)와 계모가 등장한다고 말한다. Brewer 12, 21-22. Neal은 *Bevis of Hampton*을 논하면서 음탕하고 계략에 능한 측면을 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모든 좋은 면을 Josian에게 투사했다고 말한다(203-04).

수많은 왕비의 예들이 증명하듯, 어머니는 자식의 결혼에서, 특히 딸의 결혼에서 결코 주변적이거나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¹⁷ 그러나 엄격한 가부장제와 남자 중심의 상속과 통치 구조가 강화되는 후기 중세 영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강력한 어머니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위장될 필요가 있었다. 나쁜 시어머니는 이러한 염려와 불편함을 해소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힘과 권위는 오직 아버지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쁜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이유로 필요하다. 그것은 중세 결혼의 가문적 성격이다. 특히 왕가의 결혼에서는 필부의 가정에서보다 정치적 연대의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가문간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의 성격은 증대한다. 만약 『법률가의 이야기』의 알라(Alla) 왕이나 『에마레』의 갈리스(Galys) 왕처럼 가문을 잇고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가문 혹은 왕가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가문 간의 결합으로서의 성격을 뒤엎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 신분이 낮은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중세 시대에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으므로, 이러한 결혼은 축복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사악한 시어머니가 계속 등장한다고도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에마레가 자신을 추방시키라는 왕의 편지 내용을 듣고 지체 높은 왕이 “자신같이 천한 신분의 여자와 결혼해서 수치심을 느꼈으리라”(631-33)고 해석하는 것은 결혼의 가문적 성격에 대한 당대의 기대를 에마레가 잘 알고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스카야와 샬즈베리(Laskaya and Salisbury)는 『에마레』가 수록된 필사본 앤솔로지가 사회 규범을 재정의하는 데에 관심을 가진 청중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만족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영국식 브레튼 시가는 새로 부상하는 영국의 핵가족과 영국적인 가족 가치관 형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한다(11-12). 허드슨(Hudson)은 『에마레』는 두 개의 상이하면서도 상호연결된 가족 구조인 가문적 성격의 가족과 핵가족의 두 체제가 맞물리고 갈등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나쁜 시어머니는 결혼의 가문적 성격을 기재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이러한 가문적 성격은 딸에게 또 다른 구속을 강요한다. 결혼하려는 딸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에마레는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겼으나

¹⁷ 플랜타지네트 왕조의 왕비들이 자녀들의 혼사에 주도적 혹은 적극적으로 개입한 예들에 대해서는 Parsons, “Mothers” 63-66 참조. 가장 좋은 예는 Edward I의 왕비 Eleanor of Castile일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아버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실패한다. 결혼을 앞둔 여성의 정체성은 결국 누구의 딸인가, 혹은 누구의 딸로 인정되고 있는지로 환원되며 딸은 아버지에 의해 규정된다.

그렇다면 『에마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 즉 딸에 대해 근친상간의 욕망을 가진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법률가가 지적하듯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토록 천륜을 어기는 극악무도한 짓”(88)인 근친상간 모티프는 왜 그렇게 자주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일까?¹⁸ 근친상간에 대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말해주듯이 중세 시대의 교회법에서 근친상간 자체는 몹쓸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는 했지만, 막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아버지와 딸 등 생물학적인 가족 내의 근친상간을 겨냥한다기보다는 대부, 대모, 대자, 대녀 등 영적 친족 사이, 혹은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¹⁹ 그리고 중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근친상간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부녀 근친상간이 아니라 모자 근친상간이었다(Archibald 144). 부녀 근친상간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도 명백한 교훈은 아버지를 향하지 않았다(Archibald 25). 근친상간의 욕망을 지닌 아버지에게 주의를 주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들의 실제적 관심은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 그 힌트는 이야기의 결말이 부녀상봉이나 부부상봉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상속자가 없던 아버지가 딸을 통해 상속자를 얻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근친상간을 범했던 아버지는 속죄의 로마 순례를 한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잃어버린 딸 이외에 상속자가 없었던 아버지들은 적법한 상속자를 얻고 평안한 말년을 맞이한다. 『에마레』는 모두 부부 상봉과 부녀의 재결합에서 이야기가 끝을 맺지만 『법률가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컨스탄스의 아들이 친정 아버지의 뒤를 잇는 성공적인 계승과 상속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점은 이야기의 초점이 근친상간에 있지 않고 “가문의 정치학”(Archibald 26)에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 크나큰 의문을 자아낸다. 상속이 궁극적 관심사였다면 근

¹⁸ 본문에서 *The Canterbury Tales*에 대한 인용은 모두 Benson을 따름.

¹⁹ Savage 347-50. Archibald는 생물학적인 가족 혹은 핵가족 내에서의 근친상간 관계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핵가족 이외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히 영적 친족 (spiritual kinship) 사이의 근친상간금지령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큰 효력을 갖지 않았다고 말한다(Archibald 41-49).

친상간 모티프를 굳이 넣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에마레』의 근친상간 모티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딸에 대한 근친상간의 욕망에 휘말리게 된 순간으로 되돌아가볼 필요가 있다. 그가 근친상간 욕망을 품게 된 것은 시실리 왕이 가져다 준 천을 보았을 때이다(187-89). 1035행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에서 거의 백여 행에 이를 정도로 길게 설명되는 아름다운 천(85-180)과 그것으로 지어진 옷에 대한 묘사는 매우 선명하고 그 내력과 효과에 대한 설명 역시 자세하다. 네 쌍의 유명한 연인들이 천의 네 모서리에 보석과 함께 아로새겨진 그 천을 본 순간 황제는 “분명히 이것은 요정이 가져온 것일 게야, 아니면 환영일 거야”(Sertes, thys ys a fayry, or ellys a vanyte!; 104-05)라고 외친다. 이 세상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힘 앞에 황제가 압도당하는 모습은 결국 이 천이 황제-남성을 위협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징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천을 보고 황제는 욕정을 느꼈고, 그리고 젊고 아름다울 딸을 떠올린다. 에마레가 등장할 때마다, 그리고 그녀를 지칭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녀의 옷 없이 그녀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이다. 작품 내에서도 그녀를 지칭할 때에는 위의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항상 “옷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아버지나 시어머니 모두 그녀를 내쫓을 때에 그녀에게 이 옷을 입게 하며 에마레가 남편, 아버지와 상봉할 때에도 이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 옷을 입고 나타나면 낯선 사람도 그녀를 보호하고 처음 본 갈리스 왕도 그녀에게 반하게 된다.²⁰ 그 천으로 지은 옷을 입기 전의 에마레에 대한 묘사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묘사는 나오지 않는다. 오직 그 천으로 만든 옷을 입을 때만이 그녀는 “흙으로 빚어진 지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245-46)는 묘사가 반복된다. 통제될 때만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가부장적 힘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끊임없이 그 통제를 벗어나 가부장적 질서를

²⁰ 에마레의 옷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여 많은 평자들이 이 옷의 의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Dieter Mehl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 주는 것으로서 그녀의 “내적 완벽성”을 상징한다고 보았고(Donovan 340에서 재인용), Donovan은 에마레가 마음에 품은 이상의 갤러리(gallery of ideals)로 보았다(339). 이 옷을 에마레의 성적 매력의 간접적 반영으로 보는 W. A. Davenport의 해석(135)이 본 논문과 비슷한 입장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에마레 개인의 성적 매력이 아니라 여성 일반이 갖고 있는 성적 매력, 혹은 섹슈얼리티가 가진 힘을 상징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란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지닌 힘을 극대화한 한 상징물이 바로 이 마법의 옷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황제가 이 천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천으로 지어진 옷을 입은 딸에 대해 욕정을 품게 되었다는 것은 황제 개인의 최악된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자체가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기가 되서도 적절한 짝을 찾지 못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사회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의 도치된 표현이 아버지의 딸에 대한 근친상간적 욕망이라 볼 수 있다. 딸은 집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속히 결혼하여 집을 떠나야 하는 존재이다. 딸에게는 집이 “집 같지 않은” 곳이다(“unhomely” space) (Chance 3).

에마레는 마법의 힘을 지닌 것 같이 보이는 옷/천 때문에 아버지의 근친상간적 욕망에 시달려야 하기는 했지만 다시 이 옷 때문에 남편/왕을 얻을 수 있고 또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아이러니컬하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근친상간과도 같은 파괴적인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남편/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는 상속자를 얻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다시 딸이 아내와 어머니로 사회의 제도 안에 안착하고 국가의 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이 옷을 입은 에마레를 그토록 미워했던 것 역시 이 옷이 가진 힘의 이중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가문간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의 기반을 침해할 수도 있었고 동시에 그 계보를 공고하게 하는 힘도 가졌기 때문이다.

에마레의 옷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가진 힘이라는 의미 이외에 추가적 의미를 포함한다. 그것은 그녀의 신분에 대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에마레가 집-추방-집-추방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바꾸지만, 새로운 사회와 접촉할 때마다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교한 자수뿐 아니라 오톤스, 다이아몬드, 토파즈, 루비, 에메랄드 등 갖가지 보석이 박혀 있는 이 옷을 보면 옷을 입은 자가 범상한 신분이 아님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갈리스 왕이 카도르 경(Sir Kador)에게 에마레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을 때 카도르 경이 “그녀가 먼 나라 백작의 딸”(422)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물론 에마레가 스스로의 신분을 그렇게 소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카도르 경이 보석이 가득 박힌 그녀의 옷을 보고 그렇게 짐작했으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개연성이 있다. 옷을 신분의 지표라고 해석할 때에야

에마레와 이 옷의 분리불가능성이 설명된다. 에마레가 집을 떠나 아무리 자신의 이름을 숨겨도 그 옷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그녀를 내쫓을 때에도 그 옷을 입게 했다는 점은 결국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녀의 이전의 소유주, 그녀의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음을 암시한다.

3. 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아버지

결혼하기 전의 딸에 대해 아버지는 어느 정도 힘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대답은 아마도 아버지는 딸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초서의 『의사 이야기』(*The Physician's Tale*)를 보면 정조/명예를 잃을 위험에 처한 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딸의 목을 자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버지니아(Virginia)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마치 그녀가 자연의 여신이 빚어낸 조각상인 것처럼 묘사하는 대목은 버지니아가 살아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대상' 혹은 물건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것 역시 딸 버지니아를 아버지가 소유물,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보다는 덜 충격적이지만 여전히 현대 독자들에게는 수용하기 어려운 다른 장면들이 후기 중세 영국 로맨스에서는 빈번히 등장한다.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에서 버틸락 성주 부인이 놀리듯 하는 말에서도 언급되듯이, 가웨인 경(Sir Gawain)은 기사범절(courtesy)의 최고봉으로서 영국 청중/독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인기 있는 기사도 로맨스의 주인공이었다.²¹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로맨스들은 15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가웨인 경과 래그넬 아가씨의 결혼』(*The Wedding of Sir Gawain and Dame Ragnelle*), 『가웨인 경의 결혼』(*The Marriage of Sir Gawain*), 『가웨인 경과 카알라일 성주』(*Sir Gawain and the Carle of Carlisle*), 『녹색 기사』(*The Green Knight*), 『터키 사람과 가웨인 경』(*The Turke and Sir Gawain*) 등 다양한 제목으로 변주되어 대중적 로맨스(popular romance)의 한 중요한 흐름을 이룬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로맨스들 중에는 아버지가 가웨인을 딸 방으로 데리고 들어

²¹ 영국문학 전통에서 가웨인의 인기에 대해서는 Hahn 1-3을 참조.

가 동침을 강요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²² 가령 『가웨인 경과 카알라일 성주』에서는 아서왕의 기사들의 기사범절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하던 카알라일 성주가 모든 시험을 통과한 가웨인에게 마지막에 상으로 자신의 딸과의 동침권을 선물로 주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가웨인 경, 그대가 내 모든 명을 따라주었으니
이제는 어떻게든 내가
내 힘을 다해 보답을 해야겠지.
그대는 이 밤 내내
날이 밝을 때 까지 그대와 즐길
아름다운 사람을 갖게 되었소”
그는 곧바로 자기 딸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나 가서 즐기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감히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고
곧 가웨인에게 가서
그의 옆에 다소곳이 누웠다.

“But Gawen, sethe thou hast do my byddyng,
Some kyndnis I most schewe the in anny thinge,
As ferforthe as I maye.
Thow schalt have wonn to so bryght
Schall play wytt the all this nyghte
Tyll tomorrow daye.”

²² 이 작품들의 텍스트로는 Hahn의 판본을 사용함. 대중적 로맨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McDonald 1-21과 Hahn 1-19 특히 7면의 주석 10을 참조할 것. Hahn은 유명한 텍스트 소스를 갖고 있거나 확실한 문학적 성격을 지닌 것들과 구별되는 것들을 대중적 로맨스로 분류한다. Putter는 필사실(scriptorium)에서 전문 필사본들의 도움으로 생산되어 귀족들과는 다른 문학적 취향을 가진 중간계층 이상의 지주들이나 부르주아지들이 즐겼던 작품들로 대중적 로맨스를 정의한다(Putter, “Historical Introduction” 1-7). 이러한 주된 독자층에 대한 Putter의 견해는 Hahn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Hahn은 가웨인 로맨스들이 16세기까지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자 문화(literate culture)나 공식적인 문화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Gorgolas and Gawain*을 제외한 다른 대중적 가웨인 로맨스들은 인쇄본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증거로 삼는다(Hahn 19). 한편 McDonald는 대중적 로맨스가 귀족층의 산물이 아니어서 세련된 취향을 갖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편견의 산물이라고 반박하면서 대중적 로맨스가 가진 매력과 인기가 갖는 힘과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한다.

To his doughter chambur he went full ryght,
 And bade her aryse and go to the knyght,
 And wern hym nott to playe.
 Sche dorst not agenst his byddyngge doun,
 But to Gawen sche cam full sone
 And style doun be hyme laye. (469-80)

위 구절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딸의 삶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인 처녀성, 동침권 등에 대해 딸은 주체로서의 권한을 전혀 갖지 못한다. 카알라일 성주는 자신이 준비했던 기사범절 시험을 가웨인이 모두 통과하자 상으로 마치 음식을 대접하듯이, 혹은 성(城)이나 땅을 수여하듯이 자신의 딸의 몸을 대접한다. 딸의 몸은 성주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상으로 인식되고 수여된다. 아버지는 딸의 방으로 거침없이 들어가고 딸은 아버지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누우라면 누워야 할 뿐 반발이나 불순종은 허락되지 않는다.²³ 이것은 일반적인 로맨스에서 궁정식 사랑을 묘사할 때 제시되는 여성의 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로맨스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눌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의 방은 대부분 여성이 남성에게 주도권을 쥌 수 있는 여성의 사적 공간으로 제시된다.²⁴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할 때는 여성이 자신의 방에서 주도권을 가졌던 반면, 딸의 방으로 들어간 아버지에게 이곳은 여성의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다만 자신의 통제권역 내의 공간일 뿐이다. 딸의 몸, 딸의 공간, 딸의 삶은 모두 아버지의 소유이다.

이와 비슷한 장면은 『카알라일 성주』(*The Carle of Carlisle*)에서도 등장한다.²⁵

²³ 이러한 일방적 명령의 구조는 가웨인과 하룻 밤을 지낸 후에도 확인된다. 딸은 “그토록 자신과 가까이 있었던” 가웨인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결혼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 등 궁금한 것이 많지만 감히 아버지에게 질문하지 못한다(508-10).

²⁴ *Troilus and Criseyde*에서 크리세이테의 방에 트로일러스가 처음으로 찾아 들어갔을 때의 장면은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여성의 공간으로서의 방(chamber)의 성격에 대해서는 Ormrod 284-87참조

²⁵ *The Carle of Carlisle*는 가장 잘 알려진 포스트중세(postmedieval) 필사본인 Percy Folio에 수록되어 있다. 1650년 경 편찬된 이 필사본에는 *The Carle of Carlisle*뿐 아니라 *The Green Knight* 등 많은 후기 중세와 르네상스 대중적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Sir Gawain and the Carle of Carlisle*과 *The Carle of Carlisle*는 소스(source)나 파생본(derivative) 등으로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는 않아서 아마도 현재는 소실된 또 다른 중세 판본이 존재했으리라고 추정된다(Hahn 373-74).

가웨인에게 부과한 시험을 가웨인이 성공적으로 통과하자 성주는 가웨인을 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웨인을 딸 옆에 눕게 한다. 그는 가웨인이 딸을 껴안는 것을 지켜본 후, “딸아 자거라”고 말하며 나오는데 이때 그는 방문을 잠그기까지 한다(350-60). 『카랄라일 성주』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명령하고 딸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측면이 덜 강조되는 반면, 아버지/남편이 아내/딸의 몸 혹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동일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성주는 가웨인의 손을 이끌었고
 두 사람은 어떤 방으로 갔다.
 아주 아름다운 잠자리가 그곳에 펼쳐져 있었는데
 성주 부인이 그 안에 누워 있었다.
 성주는 “가웨인, 기사법절에 따라
 이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침대로 들어가게.
 내 눈 앞에서 그녀에게 세 번 입맞추게.
 그리고 더 이상은 하지 말도록 하게.”
 성주는 이불을 활짝 젖혔고
 가웨인은 부인 옆에 누워
 그녀를 껴안았다.

The Carle tooke Gawaine by the hand,
 And both into a chamber they wend.
 A full faire bed there was spred:
 The Carles wiffe therin was laid.
 The Carle said, “Gawaine, of curtesye
 Gett into this bedd with this faire ladye.
 Kisse thou her thrice before mine eye:
 Look thou doe no other villanye.”
 The Carle opened the sheetes wyde.
 Gawaine gott in by the ladyes syde;
 Gawaine over he put his arme – (331-41)

이 장면은 여러모로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와 대조되어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딸의 방으로 성주가 가웨인을 이끄는 장면과 비교하면 더욱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성주가 가웨인에게 자신의 부인과 입맞춤을 하라

고 하면서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 장면을 제외하면 모든 구절이 성주가 가웨인을 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두 장면은 바로 이어져 있어서 독자들은 누구나 마치 판박이처럼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부인의 몸이 남편의 소유물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 장면과 딸 방의 장면이 일치한다는 것은 딸의 몸 역시 아버지의 소유물이며 딸의 몸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성주의 명령에 따라 그의 관찰 혹은 관람의 눈길 아래 정확히 움직이는 가웨인의 행위는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듯한 연극적 성격을 띤다. 성주의 애초의 목적은 가웨인이 기사법절을 잘 준수하는가를 시험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씌워져 있던 사술(邪術)에서 자신을 구해 줄 사람을 찾는 일이었으나, 그 모든 모험의 최종 관문은 결국 아내와 딸이었다. 이것은 아내와 딸은 독립된 판단과 행동권을 가진 주체가 아니며 성주가 가웨인과 케이 경(Sir Kay)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와인이나 창과 같이 아내와 딸은 자신이 동원 가능한 수단이며 자산임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성주에게 아내와 딸은 어느 지점에서 분리되는가? 성주는 가웨인에게 아내에게 입맞추라고 말하면서도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데 비해, 딸에 대해서는 동침을 허락, 아니 심지어는 강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은 성주가 가웨인을 시험은 하되 불륜만은 용인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주가 결국 가웨인과 자신의 딸을 결혼시킨다는 점이다. 『가웨인 경과 카알라일 성주』와 『카알라일 성주』 양쪽 작품 모두에서 가웨인과 딸이 초야를 치른 다음 날 성주는 가웨인에게 자신이 마법에 걸렸던 사연을 말한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던 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공양 예배당(chantry)을 짓겠다고 말한 후 딸과 가웨인을 결혼시킨다. 이후 성주는 아서왕의 백작으로 서임되어 원탁의 기사의 사회에 편입된다. 이것은 성주의 딸과 가웨인의 결혼이 지극히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²⁶ 표면적으로는 가웨인과 성주 부인의 유사 동침 장면은 가웨인의

²⁶ *Sir Gawain and the Carle of Carlisle*에서는 이 결혼의 정치적 성격이 낭만적 사랑으로 대치되고 은폐된다. 성주의 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여서 가웨인 경이 기뻐했고(487-92) 성주 딸은 가웨인을 평소 애모해왔다고 말해서(493-95) 이들의 관계는 매우 자발적인 사랑에 기초한 것처럼 그려진다. 또한 초야를 치른 후 그와 헤어져야 하는 줄 알고 딸이 매우 슬퍼하는(508-10) 장면이 나오는데 남성 판타지의 반영이기도 한 이 장면 역시 낭만적 사랑의 구도 안에 이들의 관계를 위치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The Carle*

기사도에 대한 마지막 관문이고, 가웨인과 딸의 동침은 성공적인 시험 통과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이들의 동침은 성주가 가웨인과 딸을 결혼으로 결합시키기 위한 유인책이며, 이들의 결혼은 아서왕의 원탁이라는 사회적 연대에 동참하지 못했던 성주가 기사도 연대의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보증수표의 역할을 한다. 딸의 몸, 딸이란 존재는 아버지의 영토의 안정, 정치적 연대의 주춧돌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난 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실제 역사 속에서는 딸의 결혼에 아버지의 동의가 매우 긴요한 것이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강압적 성격을 갖는다고만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치 않는 남성이 구혼할 경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아가씨가 내세우는 구실인 경우도 많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 채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McSheffrey 153-74). 만약 딸이 왕족이나 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 에드워드 1세의 딸들 중 마가렛(Margaret) 공주는 부모님의 명대로 결혼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황상 증거로 볼 때 결혼식 후 남편 집으로 떠나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은 하는 수 없이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혼수 비용을 지불하여 그녀를 유인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역시 아버지가 딸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음을 암시한다. 또 다른 딸 존(John of Acre) 공주는 첫 결혼한 남편과 사별한 지 2년 후 신분이 훨씬 낮은 사람과 비밀 결혼을 한 후 임신을 하여 발각되었다. 격분한 왕에게 그녀는 “대 백작이 비천한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치욕이 아니듯이 공작부인이 유망한 젊은이를 그런 식으로 높이는 것은 비난 받을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다”고 이야기했다(Parsons, “Mothers” 76). 이러한 발언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결혼이 그나마 묵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공주의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일단 결혼을 한 번 하고나면 딸은 아버지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과부에게는 상대적 자율성이 주어졌기 때문이다.²⁷

로맨스의 여주인공 혹은 딸의 경우는 어떠한가? 결혼 전의 딸이 아버지의 허

*of Carlisle*에서는 이 결혼의 정치적 성격은 결혼의 종교적 격식에 의해 위장되고 은폐된다. 주교가 결혼식을 집례하고(428) 성주는 성대한 결혼 예물을 가웨인에게 준다.

²⁷ 남편이 죽은 후 과부는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때 친정과는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후의 재혼 상대를 선택할 때에도 친정 가문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Hanawalt 참조.

락 없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가? 이에 대한 극단적인 예는 『가웨인 경 용맹담』(*The Jeaste of Sir Gawain*)에서 찾을 수 있다. 앞의 두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웨인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사랑을 나눈다. “그는 그렇게 우아한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하였고 더 지체하지 않고 그녀의 호의를 누렸다”(6-10)는 설명은 로맨스에서 늘 만나는 궁정식 사랑의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아름다운 아가씨, 우아한 궁정식 매너, 기사다운 행동거지, 달콤한 키스, 그리고 사랑 나누기 등 로맨스의 공식을 조목조목 따르는 것 같은 묘사 뒤에 따라오는 것은 놀랍게도 아버지의 태풍 같은 분노이다.

네가 같이 간 사람은 바로 내 딸이다.

너는 내게 큰 악을 행했다.

너는 결코 이를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저 처녀와 잠자는데 성공했다.

저 아이는 정숙하여 이제까지 어떤 놈도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말이다.

Yt ys my doughter that thow lyes by.

Thowe hast done me great vyllanye –

Amende yt mayst thou nought.

Thou haste greate fortune with that dame:

Tyll nowe never man coulde for shame. (17-20)

이 구절은 딸의 처녀성이 아버지의 큰 자산이며 딸의 몸(혹은 마음, 아니면 몸과 마음 모두)을 가진 것은 아버지에게는 큰 손실을 끼치는 해악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 맥락에서 읽어보면 인용문의 “정숙하여”(for shame)는 “아버지의 통제 하에 잘 있어야한다”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궁극적 목적을 여성의 행동 규범으로 치환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가웨인의 죄는 정숙한 딸을 유혹한 죄라기 보다는 아버지의 통제권과 소유권을 침해한 죄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허락 없는 남녀의 자발적 사랑은 징벌의 대상인 것이다. 이후 딸의 아버지, 남자 형제들과 가웨인이 연달아 결투를 벌이고 헤어진 후, 딸의 오빠 브랜들 경(Sir Brandles)은 여동생을 “창녀”라고 부르고는 힘껏 패준다. 가웨인과의 결투 때문에 상처투성이인 아버지와 아들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가지만 “딸은 혼자 어디론가

가 버리고 그들은 다시는 그 날 이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여기저기 방랑하였다”(524-26). 그 후 이 아버지, 아들과 가웨인은 서로를 다시 보지 못해 기뻐했다고 로맨스의 결말이 맺어진다. 방탕한 딸은 가문의 수치요 짐일 뿐이므로 골칫거리 딸이 사라진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남성연대를 형성하며 즐겁게 살 수 있다. 가족도 화자도 딸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소유물로서의 가치를 잃은 딸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딸로서의 의미도 가치도 없음을 냉혹하게 보여준다.

성주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극적 장치 안에서 혹은 기사범절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회적 관습의 구조 안에서, 즉 남성연대의 규칙의 범위 안에서의 딸의 교환과 유통은 남성 연대 형성에 도움을 주고 단절된 과거를 회복시키며 사회 질서를 공고하게 한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진한 것처럼, 사용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딸의 유용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제되지 않은 딸의 위험성 역시 커진다. 아버지의 승인 없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그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으며 참혹한 처벌이 뒤따른다. 딸은 아버지의 통제 안에 있을 때 딸이지 통제를 벗어나려는 순간 딸이 아닌 셈이다. 딸은 정숙할 때, 즉 아버지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았을 때 아름답고 소중하다. 정교한 구조와 잘 통제된 언어를 구사하는 지극히 문학적인 초서의 『의사 이야기』와 투박한 언어에 상투적 반복적인 구조를 지닌 대중적 로맨스인 『가웨인 경 용맹담』은 세월을 넘고 독자의 계층적 차이를 넘어 어느새 같은 결론으로 수렴된다.

4. 결론

중세 시대의 여성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까지 많은 평자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어 왔다. 여성의 주체성, 자율성, 권한, 경제력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완전히 무력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연구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여성이 남성을 밀어내고 중심적 위치, 혹은 우월적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세 시대의 여성은 기독교나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상호 협력과 강화를 통해 주변화된 존재였던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딸이라는 위치를 가진 여성은 특히 더 주변화된 존재였음을 후기 중세 영국 로맨스들은 암시한다. 아버지의 소유물로서의 딸, 통제되어야만 하는 딸의 섹슈얼리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권리를 가진 아버지, 그렇게 해서 교환과 순환의 회로 안으로 진입하는 딸, 아버지의 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정체성이 확인되는 딸의 위치, 딸의 입시성, 경계인으로서의 성격, 딸의 몸, 혹은 딸의 섹슈얼리티를 활용한 남성 연대 및 아버지 권력 강화 등, 후기 중세 시대의 역사의 편린과 가부장 이데올로기의 그림자가 로맨스들 속에서 누차 확인된다.

그렇다면 가문과 가문을 연결하여 연대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통제되어야 하는 딸의 모습은 어째서 그렇게 강조되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중세 시대 유럽의 사회 구조를 견인하는 가부장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특히 후기 중세 영국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가문의 존속과 계승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 실제로 영국 귀족들 대다수가 상속자의 부재로 인해 가문의 단절을 경험하였고 게다가 에드워드 3세가 어머니의 섭정을 뒤엎는 일종의 궁정 내 쿠데타를 일으킨 이래 리처드 2세, 헨리 4세, 그리고 장미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다수의 가문들은 정치적 연대의 문제로 심한 부침(浮沈)을 겪었다. 이러한 때에 딸을 통한 가문의 연대는 가문의 존속과 흥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좀 더 후대의 일기기는 하지만 튜더 왕조의 출발에 있어서 에드워드 4세의 딸이자 리처드 3세의 질녀였던 요크가(家)의 엘리자베스(Elizabeth of York)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사도 로맨스의 주된 소재였던 기사 개인의 무력과 용맹만으로는 더 이상 가문의 존속과 영예를 보장할 수 없고 가문간의 연대가 사회 지배계층의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딸은 오히려 그 경제적 성격 때문에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된 셈이다. 가문간의 연대는 귀족 계층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귀족 계층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는 젠트리 계층에게도 결혼은 중요한 비즈니스였고 따라서 딸의 통제는 아버지에게 혹은 그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더욱이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토지 기반의 귀족 계층이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서 자본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후기 중세 영국에서 결혼을 통한 재산 증식은 젠트리 뿐 아니라 귀족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딸에게는 지참금을 주어 시집을 보내고 토지와 집 등은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의도는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 좌절되어 예기치 않게도 재산이

딸에게 상속되는 일이 빈번했다. 집 밖의 사람인 줄 알았던 딸이 가문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후기 중세 영국에서 젠트리 계층이 대중적 로맨스의 주된 독자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후기 중세 영국의 젠트리는 신분과 재산 양쪽의 이동에 있어서 가장 유동적인 위치에 있었다. 거세게 요동하는 사회 현실을 대면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결혼이 갖는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딸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혹은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소망이 이 로맨스 안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로맨스를 역사적 기록물처럼 취급하면서 로맨스 안의 사건들이 실제 상황이라고 혼동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문학은 역사와 교차하고 서로 간섭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관여한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한 개념 역시 작가와 독자의 협력 속에 로맨스를 통해 창조되고 구성된다. 그리고 이 로맨스들은 다시금 작가와 독자의 사고를 지배하고 개념을 견고하게 만든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프레임으로 로맨스들을 바라보면 이제까지 납득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 밑에 숨어 있는 의미가 새롭게 인식되고 디테일들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실제 역사 속에서는 존재했을 아버지와 딸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해 지워지고 어머니의 힘 역시 부인되거나 왜곡된다. 반면 가문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딸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조되는데 그 결과 딸의 주체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기능적 역할만이 부각된다. 『학생 이야기』(*The Clerk's Tale*)의 그리셀다(*Griselda*)와 재니쿨라(*Janicula*)에서 보이듯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온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따뜻한 딸의 모습이 역사 속에 분명히 있으려면, 후기 중세 로맨스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아마도 남편이 죽은 후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1158) 아버지를 돌보는 컨스탄스의 모습에서 그 희미한 그림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주제어 | 아버지, 딸, 가족, 가부장제, 기사도, 컨스탄스, 에마레, 가웨인, 로맨스, 여성주의

인용문헌

- Archibald, Elizabeth. *Incest and the Medieval Imagination*. Oxford: Clarendon, 2001. rpt. 2003.
- Ashton, Gail. "Her Father's Daughter: The Realignment of Father-Daughter Kinship in Three Romance Tales." *Chaucer Review* 34 (2000): 416-27.
- Benson, Larry D., gen. ed. *The Riverside Chaucer*.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Boose, Lynda E. "The Father's House and the Daughter In It: The Structures of Western Culture's Father-Daughter Relationship." *Daughters and Fathers*. Ed. Lynda E. Boose and Betty S. Flower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9. 19-74.
- Brewer, D. S. *Symbolic Stories: Traditional Narratives of the Family Drama in English Literature*. Woodbridge, Suffolk: D. S. Brewer, 1980.
- Chance, Jane. *The Literary Subversions of Medieval Women*. New York: Palgrave, 2007.
- Davenport, W. A. *Chaucer and his English Contemporaries: Prologue and Tale in the 'Canterbury Tales.'* London: Macmillan, 1998.
- Dinshaw, Carolyn. *Chaucer's Sexual Poetics*. Madison: U of Wisconsin P, 1989.
- Donovan, Mortimer J. "Middle English *Emare* and the Cloth Worthily Wrought." *The Learned and the Lewed: Studies in Chaucer and Medieval Literature*. Ed. Larry D. Benson. Cambridge: Harvard UP, 1974. 337-42.
- Fellows, Jennifer. "Mothers in Middle English Romance." *Women and Literature in Britain 1150-1500*. Ed. Carol M. Meale. Cambridge: Cambridge UP, 1993. 41-60.
- Hahn, Thomas, ed. *Sir Gawain: Eleven Romances and Tales*. TEAMS: Middle English Texts Ser. Kalamazoo: Western Michigan U Medieval Inst. Pub., 1995.
- Hanawalt, Barbara. *The Wealth of Wives: Woman, Law, and Economy in Late Medieval London*. Oxford: Oxford UP, 2007.
- Hudson, Harriet. "Linear or Nuclear?: Family Patterns in Some Middle English Popular Romances." *Publications of the Medieval Association of the Midwest* 12 (2005): 26-51.
- Karras, Ruth Mazo. "'Because the Other Is a Poor Woman She Shall Be Called His Wench': Gender, Sexuality, and Social Status in Late Medieval England." *Gender and Difference in the Middle Ages*. *Medieval Cultures* 32. Ed. Sharon Farmer and Carol Braun Pasternack.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3.

210-29.

- Laskaya, Anne, and Eve Salisbury, eds. *The Middle English Breton Lays*. TEAMS: Middle English Texts Series. Kalamazoo: Western Michigan U Medieval Inst. Pub., 2001.
- McDonald, Nicola. "A Polemical Introduction." *Pulp Fictions of Medieval England: Essays in Popular Romance*. Ed. Nicola McDonald. Manchester: Manchester UP, 2004. 1-21.
- McFarlane, K. B. *The Nobility of Later Medieval England: The Ford Lectures for 1953 and Related Studies*. Oxford: Oxford UP, 1973.
- McSheffrey, Shannon. "'I will never have none ayenst my faders will': Consent and the Making of Marriage in the Late Medieval Diocese of London." *Rousseau and Rosenthal* 153-74.
- Mertes, Kate. *The English Noble Household 1250-1600*. New York: Blackwell, 1988.
- Neal, Derek. *The Masculine Self in Late Medieval England*. Chicago: U of Chicago P, 2008.
- Nelson, Janet. "Women at the Court of Charlemagne: A Case of Monstrous Regiment?" *Parsons* 43-62.
- Ormrod, W. M. "In Bed with Joan of Kent: The King's Mother and the Peasants' Revolt." *Wogan-Browne et al.* 277-92.
- Osborn, Marijane. *Romancing the Goddess: Three Middle English Romances about Women*. Urbana: U of Illinois P, 1998.
- Parsons, John Carmi, ed. *Medieval Queenship*. Stroud: Sutton, 1993. rpt. 1998.
- _____. "Introduction: Family, Sex, and Power: The Rhythms of Medieval Queenship." *Parsons* 1-12.
- _____. "Mothers, Daughters, Marriage, Power: Some Plantagenet Evidence, 1150-1500." *Parsons* 63-78.
- _____. "'Que nos in infancia lactauit': The Impact of Childhood Care-givers on Plantagenet Family Relationships in the Thirteenth and Early Fourteenth Centuries." *Rousseau and Rosenthal* 298-324.
- Prior, Sandra Pierson. "Virginity and Sacrifice in Chaucer's Physician's Tale." *Carlson and Weisl* 181-98.
- Putter, Ad., and Jane Gilbert, eds. *The Spirit of Medieval English Popular Romance*. Harlow, Eng.: Longman, 2000.
- Putter, Ad. "A Historical Introduction." *Putter and Gilbert* 1-15.
- _____. "The Narrative Logic of *Emare*." *Putter and Gilbert* 137-70.

- Riddy, Felicity. "Mother Knows Best: Reading Social Change in a Courtesy Text." *Speculum* 71 (1996): 66-86.
- _____. "Fathers and Daughters in Holbein's Sketch of Thomas More's Family." *Voaden and Wolfthal* 19-38.
- Rousseau, Constance M., and Joel T. Rosenthal, eds. *Women, Marriage, and Family in Medieval Christendom: Essays in Memory of Michael M. Sheehan*, C. S. B. Studies in Medieval Culture 37. Medieval Institute Publications. Kalamazoo: Western Michigan U, 1998.
- Salter, David. "Born to Thralldom and Penance: Wives and Mothers in Middle English Romance." *Writing Gender and Genre in Medieval Literature: Approaches to Old and Middle English Texts*. Ed. Elain Treharne. Cambridge: D. S. Brewer 2002. 40-58.
- Savage, Anne. "Clothing Paternal Incest in The Clerk's Tale, *Emare*, and the *Life of St Dymphna*." *Wogan-Browne et al.* 345-62.
- Stafford, Pauline. *Queens, Concubines and Dowagers: The King's Wife in the Early Middle Ages*. London: Leicester UP, 1983. rpt. 1998.
- Voaden, Rosalynn, and Diane Wolfthal. *Framing the Family: Narrative and Representation in the Medieval and Early Modern Periods*. Tempe: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2005.
- Wogan-Browne, Jocelyn, et al., eds. *Medieval Women: Texts and Contexts in Late Medieval Britain, Essays for Felicity Riddy*. Turnhout, Belgium: Brepolis, 2000.
- Wolfthal, Diane. Introduction. *Voaden and Wolfthal* 1-16.

ABSTRACT

Fathers and Daughters in the English romance in the later middle ages

Yejung Choi

This essay purpor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and daughters represented in the English romances in the later middle ages. While father has long been the focus of research heavily influenced by psychoanalysis and feminism, the role of daughter or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daughter has been almost entirely neglected. The paucity of criticism is partly caused by the fact that it is hard to find romances featuring the theme of father and daughter. Another reason for the paucity is found in the ambiguous nature of the position of a daughter. As women were categorized as the fourth estate, and lay women were defined according to their sexually defined role as wife and widow, daughters who did not fit into either were considered as temporary residents who were supposed to be married and leave soon. A daughter was a being on the border.

The Constance-Emare saga is one of the few examples in which father and daughter are foregrounded as protagonists. Father's incestuous desire, falsely accused queens, being cast away in a rudderless boat, repetition of home-exile pattern, reunion of daughter with father, and of wife with husband are common motifs in the saga. These common features reveal the almost exclusive control of father over daughter especially in the matters of marriage or daughter's sexuality. They also register the "politics of lineage" involved in marriage. The recurring incest motif ironically marks out the patriarchal need to control a daughter's sexuality so as to be "properly" exchanged and contained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Popular romances in the fifteenth century, especially Gawain romances, explicitly demonstrate the ownership of father over daughter. In both *Sir Gawain and the Carle of Carlisle* and *the Carle of Carlisle*, father bids his daughter to sleep with Gawain and without any hesitation she obeys. She is expected to perform her role as his property to strengthen the male solidarity extending father's political and territorial power. Her body should be protected and kept intact as

father's important asset which is available whenever needed. Her sexuality belongs to father as that of wife does to husband. In the theatrical setting of the performance of the rule of courtesy, the exchange of daughter's sexuality is encouraged and conducted to enhance male solidarity, while it is severely condemned when derailed from the designated circuit under the father's rule as is shown in *the Jeaste of Sir Gawain*.

Daughters in the later middle ages were doubly marginalized. They were marginalized as a woman in a society, and in their family they were again expelled to the border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as a temporary being to be exchanged sooner or later. Seen in the frame of father and daughter, English romances in the later middle ages bring to the light the meaning of the narrative strategies taken advantage of for the justification and enhancement of patriarchal ideology.

Key Words | father, daughter, patriarchy, courtesy, Constance, Emare, Gawain, romance, feminism